

프로야구 전망대

‘마운드 위기’ KIA, 부진 딛고 반등 노린다



제임스 네일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마운드 회복과 함께 순위 반등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한화이글스에 투징 시리즈를 당한 뒤 주말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그 결과 17승 1무 19패 승률 0.472를 기록, 리그 공동 5위 자리를 유지했다.

현재 프로야구 중·하위권 경쟁은 치열하다. KIA는 두산과 게임차 없이 같은 위치에 있다. 밀어붙이는 7위 한화에 1.0게임차, 8위 NC다이노스에 1.5게임차, 9위 롯데에 2.0게임차로 쫓기고 있다.

KIA는 이번 주 주중 광주에서 두산과 만난다. 주말에는 대구에서 3위 삼성과 경기를 치른다. 순위 다툼을 하는 팀과 먼저 맞붙는 만큼, 주중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상위권 추격에 나설 수 있다.

순위 분수령에 놓인 KIA는 최근 마운드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KIA 마운드는 지난 주 평균자책점(ERA) 5.77로 이 부문 리그 공동 8위에 자리했다. 특히 선발진은 ERA 7.09로 이 부문 9위에 머물렀다.

이 기간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상대에게 흐름을 내줬다.

도중 선발진의 중심인 양현종은 지난 7일 경기에서 4.1이닝 10피안타 6실점으로 무너졌다. 특히 팀 마운드의 미래로 기대받는 이의리도 최근 두 차례

등판에서 각각 1.2이닝 5실점, 2.2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다. 올 시즌 성적 역시 8경기 1승 4패 평균자책점 9.00으로 부진하다. 제구 난조가 이어지며 이닝 소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외국인 투수 아담 울러 역시 한화전에서 6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다.

결국 선발진 대부분이 불안한 모습을 보

이면서 불펜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은 새로운 5선발로 떠오른 황동하다. 황동하는 지난 8일 롯데전에서 6이닝 5피안타 1실점 호투를 펼쳤다. 올 시즌 선발 등판한 3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59를 기록 중이다.

부진했던 제임스 네일도 9일 롯데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회복세에 있다.

KIA가 순위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발진들이 빠르게 정상 컨디션을 찾아야 한다.

타선은 장타력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KIA는 지난주 팀 타율 0.257로 리그 8위에 머물렀지만 OPS(출루율+장타율)는 0.816으로 리그 3위, 홈런은 10개로 2위에 오르며 장타력을 과시했다.

특히 박재현의 활약이 눈부셨다. 박재현은 지난주 6경기에서 24타수 11안타 3홈런 8타점 타율 0.458을 기록했다. 지난 8일 롯데전에서는 데뷔 첫 멀티홈런을 터뜨렸고, 3경기 연속 멀티히트와 결승타 2개를 기록

하며 타선을 이끌었다. 김도영도 6경기에서 19타수 7안타 1홈런 타율 0.368로 중심타선 역할을 해냈다. 더욱이 시즌 홈런은 12개로 이 부문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새 외국인 타자 아델리온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아델리온은 지난 8일 롯데전에서 9회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KBO리그 데뷔 후 기록한 첫 4안타를 모두 홈런으로 장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어 9일 경기에서는 8회 결승 적시타를 때려내며 해결사 역할까지 해냈다.

KIA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주중 두산과 맞붙는다. 두산은 현재 17승 1무 19패 승률 0.472로 리그 5위에 자리 잡고 있다. 평균자책점은 4위(4.13)로 KIA(4.66)를 웃돌고 있지만, 팀 타율은 공동 8위(0.253)로 KIA(0.256)를 밀린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날 두산은 12일 최승용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KIA는 아담 울러를 선발로 투입한다.

두산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대구로 이동해 삼성과 3연전을 치른다. 삼성은 최근 7연승을 달리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KIA가 이번 주 투타 회복과 함께 순위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박재현

12~14일 광주 두산전...15~17일 대구 삼성전 주간 ERA 공동 8위·타율 7위...투타 회복 관건

광주체중, 전국소년체전 결단식...선전 다짐

광주체육중학교 선수단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1일 광주체육중학교 후관동 강당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체육중학교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결단식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명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민주 광주육상연맹회장, 김필모 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포교과장, 엄길훈 광주체육고등학교장, 김은수 광주체육중학교운영위원장, 김기주 광주체육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등 주요 내빈과 선수·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격려사와 축사, 출전 준비·응원 영상 상영, 격려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체육회는 11일 광주체육중학교 후관동 강당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체육중학교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는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선전을 기원하며 1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광주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육상, 체조, 양궁, 레슬링 등 17개 종목 선수 150명과 지도자 39명 등 총 189명의 선수단을 구성

해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광주체육중은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25개, 은 32개, 동 35개 등 총 9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체육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지난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7개를 포함해 총 3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23일 부산서 개막...17개 종목 189명 출전
최근 3년간 메달 92개...시체육회 격려금도

KIA타이거즈 신임 대표이사에 김민수 부사장 브랜드·마케팅 전문가...“구단 가치 성장 기대”

KIA타이거즈가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KIA는 11일 김민수 기아고객경험본부 부사장을 KIA타이거즈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이사인 김민수 부사장은 199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지난 2008년에는 기아 워싱턴사무소에서 국제 대관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2019년부터 그룹 계열사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와 해비치C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26년 기아로 복귀한 뒤에는 고객경험본부장을 맡아왔다.

KIA는 김민수 대표이사가 브랜드와 마



케팅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구단의 브랜드 가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아 국내생산담당과 KIA타이거즈 대표이사를 겸직해온 최준영 사장은 그룹 내 신규 역할을 맡게 됐다. 최준영 사장은 지난 2024년 KIA의 7년 만의 통합 우승을 이끄는 등 재임 기간 구단 발전에 기여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보디빌딩 동호인, 시체육회장배서 열전

시체육회장배 보디빌딩대회 성료 지역 생활체육인 100여명 참가

광주 보디빌더들의 축제인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피트니스대회'가 보디빌딩 동호인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김중석 광주시보디빌딩협회장, 김삼운 대한보디빌딩협회 부회장, 송남·경복 등 시도보디빌딩협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 선



지난 9일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피트니스대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보디빌딩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

쳤다. 스포츠모델과 비키니, 피지크, 레깅스 및 등 다양한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

이 이어지며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소속 한선엽 부위원장과 자녀 한동규군(바운스킴)이 함께 출전에 탄탄한 육체미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역 보디빌딩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체육회장배 보디빌딩대회는 시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여덟 번째를 맞이한 체육회장배 대회가 앞으로도 지역 보디빌딩 성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육회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불스원 '레인OK' 협업 상품 출시

푸시그립 세트·와이어·야구공 케이스 눈길

KIA타이거즈가 국내 자동차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의 클래스 커어 브랜드 '레인OK'와 협업한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출시되는 상품은 푸시그립 세트와 와이어 등 총 2종이다. 레인OK는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 등 운전 시야 개선을 위한 통합 솔루션 브랜드다.

푸시그립 세트에는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가 포함됐으며, 구단 마스코트 하리가 들어간 패키지와 야구공 모양의 케이스를 적용해 팬들의 소장 욕구를 높였다.

KIA 관계자는 “불스원과의 협업을 통



해 야구팬들이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 고성능 와이어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며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시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품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판매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